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0호 [루게 제24653호] 주체103(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 타격 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 타격 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리영길 동지, 변인선 동지, 오금철 동지, 리병철 동지, 방판복 동지, 장동운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은 항공륙전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투하되어 행군, 숙영, 대상물 타격을 배합한 실동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함으로써



는 훈련을 제질화, 생활화, 습성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훈련이자 군대이고 열백 가지 군사과업중에서도 훈련이 첫번째 과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나깨나 싸움마당에 마음을 두고 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군인들을 다병종화 된 만능의 일당 백싸움군들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적들과의 대결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된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을 언제 어떤 정황이 조성되어도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항공륙전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훈련장상공을 덮으며 날아들고 항공륙전병들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서슬푸른 칼날이 되어 원수들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멸적의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항공륙전병들은 지정된 강하 지점에 정확히 착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감시대에서 훈련 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훈련을 떠나 싸움 잘하는 군대를 상상할수 없으며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훈련에 대해 순간이라도 홀시한다면 일단 싸움의 그 날에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말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새로운 훈련방법과 방식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이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주체혁명위업완성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가리라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말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새로운 훈련방법과 방식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이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주체혁명위업완성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가리라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